

찬양이 믿음으로 이어진다.

성경본문 <출애굽기 15장 1절 ~ 18절>

[1] 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2] 여호와께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3] 여호와께는 용사시니 여호와께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4]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5]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6]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7]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엮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8] 주의 콧김에 물이 쑤이되 파도가 언덕 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엇기니이다 [9]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10]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 같이 잠겼나이다 [11]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12]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13]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14]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15]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16]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 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17]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18] 여호와께서 영원무궁 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라 오던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수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애굽의 군대를 멸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승리를 기념하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승리에 대한 감사이며,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믿음의 흔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도 기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려드린 찬송과 감사를 통해서,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성숙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찬양(감사)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1] 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 [4] 그가 바

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5]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6]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7]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를 넘게 하실 때마다 그 분께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고백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새롭게 하며, 주님을 더욱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각인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 앞에서 바로의 군대를 이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의 힘으로 는 도저히 이길 수도 없었고, 이 상황을 벗어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원수였던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신 것입니다.

찬양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은 점차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과거에 보이셨던 승리와 인도하심과 어우러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찬양을 듣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찬양했던 것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 22:3)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2. 찬양이 믿음이 됩니다.

[14]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15]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16]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 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17]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18] 여호와께서 영원무궁 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자신 앞에서 이루신 일에 대한 찬양이 점점 확대되어서 하나님께로 이르더니, 이제는 미래에 있을 일들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블레셋이며, 에돔, 모압의 왕들과 주민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 앞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그럴 수밖에 없다는 믿음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그대로 믿음이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세요. 우리의 찬양이 우리를 움직이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입술을 움직이셔서, 우리 삶에 한 번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영역들을 다스리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에 대해서도 고백하게 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주님을 향한 확신 위에 거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제목>

1. 우리 입술에 믿음의 고백과 찬송을 더하여 주소서.